

수재민 일상 회복 위해 '머리 맞대' "공단 출퇴근버스 대책 강화"

익산시, 정현을 시장 주재 유관기관 회의 개최... 총 7개 기관 모여 피해 주민 지원 방안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29일 정현을 시장 주재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 이양민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장, 박병혁 전북에너지서비스 본부장, 김건중 한국전력 익산지사장, 한광선 KT익산법인지사 지사장, 김충좌 익산대대대장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익상 회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라며 "모든 기관과 협력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8~10일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민·관·군 가용자원 지원을 총동원

군산시장 간부회의서, 산단 근로자 원활한 출퇴근 대책 지시

강임준 군산시장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버스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29일 강임준 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지원 일환으로 20여 대의 시내버스를 배치하고 있다며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보완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강임준 시장은 공단 근로자들의 시내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순환 근무에 따른 시내버스대책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 시장은 최근 현안과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최근 군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대응 대책과 관련, 육아·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써달라면서 "현장 행정이라는 말이 단순한 미사여구가 되지 않게 몸으로 느끼는 현장에서의 감각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고 당부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농업인 복지서비스 사업 앞장

'수요자 맞춤형 농업 복지 실현' 정책 적극 추진

군산시가 2024년 농업인 복지 8개 사업, 8억 6천만원을 확보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업 복지 실현'을 목표로 농업인 복지서비스 사업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농번기 공중급식·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제공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한국농어민신문 구독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영농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지난 5월 중순까지 선정된 2,328명에 대해 지원중이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농번기 공중급식 역시 바쁜 농번기에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 마을 중

총 18개 마을을 선정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한 마을당 320만원씩 군산시가 부담해 공중급식을 운영 중에 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부담을 줄여주는 맞춤형 사업이다. 올해 역시 농작업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편의장비 102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을 군산시가 대신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관내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출생한 51~70세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 지원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농수특산물 미국 수출 판로 공략 나서

해외 바이어 초청 미국 LA 수출 상담회...19개 업체 대상 1:1 맞춤형 상담 지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우수한 지역 농수산물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29일 군산농업인회관에서 농수산식품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에 참가하는 제18회 LA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 LA소재 유통회사의 국내 대행사와 군산 농수산 가공업체가 직접 만나 진행되는 1:1오프라인 상담의 장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LA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 지역 농수산 가공업체 참가 지원과 행사 기간 LA 한인상공회의소, KBS America(KBS 미국지사), 전북특별자치도 LA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군산시 농수산물을 홍보하였다.

이어 해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한인마켓과 오렌지카운티 아리랑 축제 행사장 등을 방문하여 미국 현지 농수



산물 유통현황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LA 엑스포 통관 공식 지정업체를 초청하여 해외 박람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렇게 군산시는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실무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지역 농수산 가공업체

의 수출 의지를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에 해외 바이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LA 홈쇼핑월드(대표 Rick Kim)에 관심을 이끌어내 군산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소개하고 미국 수출의 협의의 자리가 성사된 셈이다.

'홈쇼핑월드'는 미국 LA, 라스베이거스 등 3개소에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TV 홈쇼핑을 통해 한국산 먹거리를 유통하는 기업이다. 그동안 전남, 경북, 강원, 전북 등과 특산물 판매 MOU를 체결하고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해 온 바가 있다.

군산시는 이번 수출 상담회에서 관내 19개 업체의 농수산식품 100여 개 상품을 선보이며, 맞춤 비즈니스 수출 상담과 샘플 발송비 등을 지원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65세 어르신 폐렴백신 무료 접종

익산시가 65세 어르신(1959년 이후)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백신 무료 접종을 8월 한 달간 집중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폐렴구균 23가' 백신을

65세 이후 접종하지 않은 1959년생 익산시민이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전에 '폐렴구균 13가'를 접종한 경우라도 65세 이후 '폐렴구균 23

가' 1회 재접종이 필요하다. 접종 방법은 13가 접종 후 최소 8주 간격을 두고 23가를 추가 접종하면 된다.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 84개 위탁의 보건소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종대상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063-859-483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예술아 놀자' 성료

익산시립예술단의 예술체험무대 '예술아, 놀자'가 사전 예약 시간 한 시간 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인기로 힘입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60분에 걸쳐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예술아, 놀자' 공연을 진행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올해로 3회째인 '예술아, 놀자'는 익산시립예술단이 무대 위에 객석을 설치해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교감하는 '관객 참여형' 문화공연이다. 무대 위에 특별한 객석에서 관객이 됐다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예술체험의 장(場)을 선사했다.

1부에서 익산시립합창단이 노래하며 친구 노래를 구하자는 내용의 합창 공

연으로 관객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어 익산시립무용단과 익산시립풍물단이 합동공연 하는 2부에서는 친구를 구하고 다 같이 노는 관객 참여형 공연이 진행돼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부송동에서 온 한 어린이 관객은 "공연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여러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참여도 할 수 있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시민이 특별한 문화 체험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이들이 더 많은 예술체험형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여름방학은 신나는 익산 다이노키즈월드서'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다이노키즈월드 이용자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익산 보석박물관은 8월 한 달간 주말과 공휴일에 다이노키즈월드를 1시간 연장 운영하고 1+1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내놀이체험시설 이용객은 익스트림 슬라이드의 3가지 시설 중 하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실내놀이체험시설은 레이저 서바이벌과 아트 클라이밍, 스키이트레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익스트림 슬라이드는 관광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슬라이드타워와 원통형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최대 22미터 높이의 드림형 슬라이드와 나선형 슬라이드 등 3가지 시설로 구성됐다.

행사 기간 실내놀이체험시설 체험객을 위한 행사도 진행한 다.

다이노키즈월드에서 숨어있는 글자를 찾아 정답을 맞으면 회차별 선착순 3명에게 마뽀이 열쇠고리, 미니선종기, 문구세트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일몰 후에는 다이노키즈월드와 주얼팰리스 등이 모여 있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서 야간 경관을 즐기며 산책도 할 수 있다. '빛 그리고 음악과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야외 조형물에 빛과 음악을 입혀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경관을 한 여름 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열하는 태양을 피해 매주 주말 가족들이 보석 같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보석 박물관에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고 이벤트에 당첨되는 즐거움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